

역설의 미학을 가장한 현존

: 남진우 개인전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에 부처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우리가 맞닥뜨리는 갈등의 시작의 대부분은 단지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정의롭다는 단순히 이분법적 차원은 아닐 것이다. 추측컨대, 각자의 세계에서 나름의 설득이 될 만한 입장에 기반할 것이고,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면서 우열이나 정의로움의 크기를 정하는 과정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관습적인 다수 공동의 판단에 따라 수렴되는 축을 향해 기울게 된다. 나 또한 판단의 선택지에 다다랐을 때 마다 위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권선징악 류의 뻘한 만화를 보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대학시절 동안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다. 시작은 섬세한 이미지와 색감에 매료되었는데, 점차 일반 드라마나 영화 못지않은 탄탄한 기획과 연출,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갈등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던 나의 판단을 유보하곤 했다. 순수한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캐릭터마다의 개별적 세계관은 나의 협소한 세계관을 침투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자극했다. 이들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는 동안 나는 판단에 대한 자유로움과 새로운 세계에 대해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다.

대왕오징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남진우 작가 또한 그의 작업에 대한 세계관은 어릴 적 즐겨 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치원 시절, 작가는 어느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대왕오징어의 자태와 신비로운 존재감에 빠져들었다. 그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온통 흐물거리며 유연하게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 유유자적한 형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스터리함으로 가득하였다. 심해 속에 살며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실제 생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거대한 생명체는 상상의 이야기, 전설이나 신화 등에서 공포의 대상이자 강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후 같은 권선징악의 전대물 만화를 보면서도 반듯하고 정형적 미남 미녀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아군 로봇보다는 왠지 대왕오징어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적군인 괴물 로봇이 그의 눈에 더 멋있게 보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아군에게 당하는 바람에 매 회 새롭게 등장하는 악당 로봇의 다양한 모습도 늘 기대되는 등장이었다고 말한다. 남진우 작가가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성장해온 개인적인 배경을 떠올리면 그가 군복무 시절 꾸준히 그려온 <가포진(종이 위에 펜, 각 21x19cm, 2007~2008)> 시리즈는 그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탄생한 자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덴마크, 아프리카, 프랑스 등으로 옮겨 생활해야 함으로써 겪은 인종차별, 언어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 등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며 거대 집단 속에서 소외시키는 사소한 언행들 속에서 자신을 향한 경계심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경계심까지 만들어져 왔던 현실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가포진> 시리즈에서 작가는 이 상황을 갑옷을 입은 오징어와 그에 올라타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캐릭터인 자신을 배치한 드로잉을 반복적으로 그림으로써 제시했던 것이다. 더불어 파괴적 캐릭터이자 현실 세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미스터리한 존재인 대왕오징어는 남진우 작가의 작업의 메인 캐릭터로서 십 수 년간 일종의 동경의 대상에게의 현신으로서 표현되었다.

최근 좀 더 비중 있게 화면을 채우며 대왕오징어와 대적하여 전투를 벌이는 이들은 성경에 등

장할법한 수호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인물들, 즉 ‘영웅’들이다.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선보인 개인전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에서 작가는 그간 강조해온 대왕오징어의 모습보다 그와 대적하는 설정으로 등장했던 캐릭터인 영웅의 모습을 주제로 삼았다. 그것은 천사를 연상케 하는 날개를 단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끔찍한 행위자들이다. 이 전시에는 영웅의 각 행위가 담긴 소품 페인팅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영웅으로서의 자태 뿐 아니라, 무리에서 쫓겨나가거나, 같은 동족을 잡아먹거나, 여럿이서 창이나 방망이로 린치하는 장면을 비롯하여 거대한 포식자로 대기 중인 또 다른 영웅의 얼굴임을 모른 채 동굴 모양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장면도 등장한다 ('일그러진 영웅 Distorted Hero'시리즈, oil on canvas 2021). 남진우 작가가 또 다른 이면을 가진 입체적 캐릭터로서 설정하여 묘사하는 것은 극히 현실적인 태도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는, 같은 대상을 두고 환호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진우는 표현 형식 면에서 자신이 레퍼런스로 삼은 대상의 모습을 초현실적으로 혹은 과거에 대한 동경의 방식으로 가공해내곤 하였다. 그것은 조각, 콜라주 기법, 혹은 부조 형식으로 드러난다. 작업 초기에 작가는 대왕 오징어의 거대한 몸체를 직접 이어 붙여서 공간 한가운데 혹은 구석에 놓아 두는 류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회화의 재료로서 화면으로 사용한 채색된 천을 자르고 꺾매어 심해로부터 실제의 공간 속으로 나오느라 지친 몸뚱이가 늘어진 듯 전시 공간 바닥에 몸을 늘어뜨리는 연출을 하였다. 그는 또한 캔버스천 혹은 종이에 그린 이미지의 부분 부분을 잘라서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회화적 콜라주를 완성시키곤 하였는데 그렇게 완성된 화면의 가장자리는 마치 중세시대의 매뉴스크립트(manuscript)에 그려진 삽화처럼 장식적인 이미지 요소들에 둘러싸인 장면과 캐릭터 등이 묘사되곤 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부조 형식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시리즈, 복합매체, 부조회화 2021>은 그간의 종이 콜라주나 천으로 만든 환조 형식의 오징어를 묘사한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 특정 장면을 연출하듯 배경과 인물 간의 레이어를 설정하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공간을 형성한다. 무대적 연출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종교적 도상을 떠올리게 한다. 세 개의 두꺼운 프레임 속 부조는 교회 재단 앞에 놓인 삼단 제단화 또는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극장의 화려한 무대를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 프레임을 따라 배치된, 혹은 프레임의 코너마다 배치된 영웅의 얼굴은 그 자체로 장식적이며, 성스러운 인물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노란 빛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들에게 둘러싸인 인물들의 에피소드는 성경에 등장할법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웅적 인물이다. 이는 중세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교회 장식에 사용하는 도상을 인용하고 있어서 종교라는 명분으로 무장한 십자군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이처럼 남진우 작가의 작업 전반에는 전반적으로 종교적 도상이 깔려있다. 스토리와 주제의 레퍼런스를 소설, 성경, 만화 등 여러 종류의 매체로부터 빌어온 와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가 종교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의 전개이면서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단순한 선악 구조를 넘어서는 통찰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라는 극단의 심리적 영역에서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도상들은 이단적 사고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절대적인 신념을 향한 또 다른 종류의 축을 제시하는 것은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성지 속으로 남진우 작가가 던지는 질문이며, 현실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만화경의 다른 한쪽이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래왔듯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영역은 예술이라

는 매니페스토를 전달하고 있다. 남진우의 그림이 역설의 미학으로 읽힐 수 있지만 그것은 거창한 수사일 뿐일 수 있겠다. 그것은 진실을 파악하기엔 너무 얽혀버린 현존하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그려낸 풍경속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